



감사와 사랑을 담아 브라질에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녹록치 않은 문제들로 인해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 때,

마치 하나님은 그림에도 곳곳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듯이 순종의 이유를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주어진 지금 여기를 살아내 보는 시간입니다.

저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 상담은 마치 자녀를 하나 더 길러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맘에 안든다고, 빠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뿐 아니라 저 자신의 진통과 성장도 함께 경험합니다. 또한 한인과 브라질 현지인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봄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어른들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새 학기를 맞아 한 아이의 학교 유니폼을 사는 데에 조금 힘을 보탰습니다. 마음을 담아 선교후원비로 보내주시는 물질이 지혜롭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2. 한 달에 한 번 빈민촌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Cesta Basica(구제품)을 나누는 사역도 계속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이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내어 주어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함께 모이는 지체들이 넉넉한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구제품을 받기 위해 모였지만 예배 때 집중하는 이분들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를 경험합니다. 이곳에도 복음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3. 올해부터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사역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열심의 신앙에서 얇의 신앙으로, 조금은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순종에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순종으로 사람들이 자라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 한 방편으로 여섯 분 정도의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신학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2주 과정으로 단순히 정보전달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으로 녹여내기 위한 모임이 되게 하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집사님들의 열정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간절함에 제가 더욱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 이분들께 심어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4. Biotuva(보이투바)에서 사역하시는 허승현 선교사님 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매 학기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특강으로 저에게 하루가 주어집니다. 선교사님이 신학적으로 이분들의 견문을 넓혀주는 사역을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상담학적으로 다가갑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한다면 돈을 버는 일이겠지만, 이곳에서 강의는 아직 연약한 신학교를 위해 돕는 역할이 됩니다. 저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을 통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사정상 사진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소식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보내고 보냄 받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더디게 가도 바르게 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해 주세요.
2. 선교센터에서 이뤄지는 12주 과정의 조직신학 공부 모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3.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과정 강의와 현지 사역의 병행을 위해 시차를 잘 극복하고 감당할 체력이 되게 해 주세요.
4. 주변과 화목하고 건강한 동역과 협력이 가능한 조화와 존중이 있는 선교가 되게 해 주세요.
5.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브라질 상파울에서 김경완, 김지훈, 에이미, 제이시 드림